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생산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 포용적 금융
	보도	2018.9.3.(월) 09:00	배포	2018.8.31.(금)	
책 임 자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02-2100-1730)		담 당 자	심 지 원 사무관 (02-2100-1724)	

제 목 : 2018 APG 서울 워크숍 개최 - 자금세탁방지제도 구축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 평가 대비

1 행사 개요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18.9.3일~7일 “국제기구 평가* 대비 교육·모의평가”를 주제로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
- * (상호평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구체적·세부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회원국의 제도가 동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
 - APG·EAG* 회원국 참석자**를 대상으로 상호평가 대비 교육·연습 프로그램 진행 후(9.3~5), 한국 대표단만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실시(9.6~7)
 - * 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기구
 - ** 라오스, 브루나이, 베트남, 몰디브, 우즈벡, 네팔, 인도, 일본, 파키스탄 등

[2018 APG 서울 워크숍 개요]

- (일시 / 장소) '18.9.3(월) ~ '18.9.7(금) / 그랜드 엠버서더 호텔
- 참석자
 - 외국정부 : APG 및 EAG 회원국
 - 국내기관 : 상호평가 관계기관(FIU, 법무부, 외교부 등 8개 기관)

2 APG 워크숍 개최 배경 및 금번 워크숍 주요 내용

- (APG워크숍 개최배경) 아태지역 협력강화를 통해 AML/CFT*체계를 공고히 하고, AML/CFT 제도 후발국을 지원하기 위해 KoFIU는 '13년부터 APG 사무국과 공동으로 「APG 서울 워크숍」을 개최해옴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nti-Money Laundering/Counter-Terrorist of Financing)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국가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 AML/CFT 분야 후발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제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후발국 지원의 일환으로 지원필요국가를 선정·초청하여 워크숍 개최

* 기술지원, 교육·훈련 기회 제공, 회의참석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IMF, Worldbank, ADB등 국제기구, 미국, 중국, 호주등 국가들이 참여

□ (금번 워크숍 주요내용) 국제기구 상호평가 대비 교육·모의연습 등 진행

○ FATF*는 '12년 새로운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회원국의 제도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왔음**

*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 효과성 평가 도입 : 제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성취의 정도'를 평가

후속조치 강화 : 모든 수검국이 상호평가 수검 후에도 주기적으로 제도 이행상황을 업데이트하여 보고하며(Follow-up report), 5년 뒤 현장실사(on-site) 점검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평가가 상설화됨

○ 일부 아태지역 국가가 국제기구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 받는 등 AML/CFT제도 구축 및 상호평가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KoFIU는 APG 사무국과 공동으로 금번 워크숍에 상호평가 대비 교육·연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호평가 수검 예정 국가를 초청

- 아울러 우리나라 상호평가 현장점검('19.7월)에 대비하기 위해 금번 워크숍에서 KoFIU 및 관계기관 직원에 대한 모의 인터뷰 등 실시

□ (상호평가 대비) KoFIU는 금번 워크숍 모의평가를 계기로 상호평가 준비상황을 재점검하고,

○ 향후 이행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모의평가 결과 및 평가자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할 계획

* 상호평가 수검국은 평가자의 현지실사에 앞서 각 권고사항별로 관련 법령등을 포함한 자국의 제도이행상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 우리나라 상호평가 수검 일정 >

기 간	주 요 일 정	세 부 내 용
‘18.9월 ~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보고서 작성 • APG 모의평가 • FATF 총회 참가 	❶ 부처별 분담, 작성팀 지정→ 작성 ❷ 관계부처 합동 워크숍 개최(2회) ❸ FATF 총회 상호평가 토의 참관
‘19.1월 ~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보고서 제출 • 평가수검자 교육 • FATF 총회 참가 • 현지실사 준비 	❶ 이행보고서, 법률/규정 등 제출 ❷ FATF 사무국의 평가수검자 교육 ❸ FATF 총회 상호평가 토의 참관
‘19.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실사 수검 	❶ 대응 담당자 지정, 사전 워크숍 ❷ 부처별 소관분야 책임 대응
‘19.9월 ~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보고서 초안 대응 • 평가자 대면회의 	❶ 보고서 초안에 대해 제출시한 내 대응 ❷ “평가자 회의”에 참석·대응
‘20.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TF 총회 토의 •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❶ 총회토의 이슈와 질의 대응 ❷ 미흡사항 후속조치 부처별 책임 이행

□ **(MOU 체결)** KoFIU는 국제협력의 외연 확장을 위해 ‘16년부터 APG 워크숍에 EAG 회원국을 초청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을 초청

○ 워크숍 기간 중에 양국간 FIU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한-우즈베크 MOU를 체결할 예정

* 각국 금융정보분석기구(FIU)는 공동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양자·다자간 합의를 통해 FIU정보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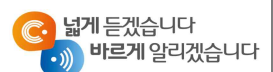
- 양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FIU 간 정보교환 강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인 에그몽그룹(Egmont)에 가입하여 에그몽 보안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

- <별첨>** 1.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개요 1부
 2. APG(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개요 1부
 3. FATF 상호평가 개요 1부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1. 설립 목적

☐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주요 UN협약)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 FATF 설립 이후 관할 범위가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 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등으로 확대

* 북한, 이란의 WMD (대량살상무기, Weapon of Mass Destruction)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Targeted Financial Sanction) 내용 포함

2. 주요 기능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이행 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 AML(Anti-Money Laundering) & CFT(Counter Financing Terrorism)

☐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제재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수단 개발 등

3.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 파리 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UN 등 국제사회는 테러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을 강조

☐ 파나마 페이퍼스*('16.4월) 사건을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 관련 FATF 국제기준의 이행 요구

*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 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포함

4.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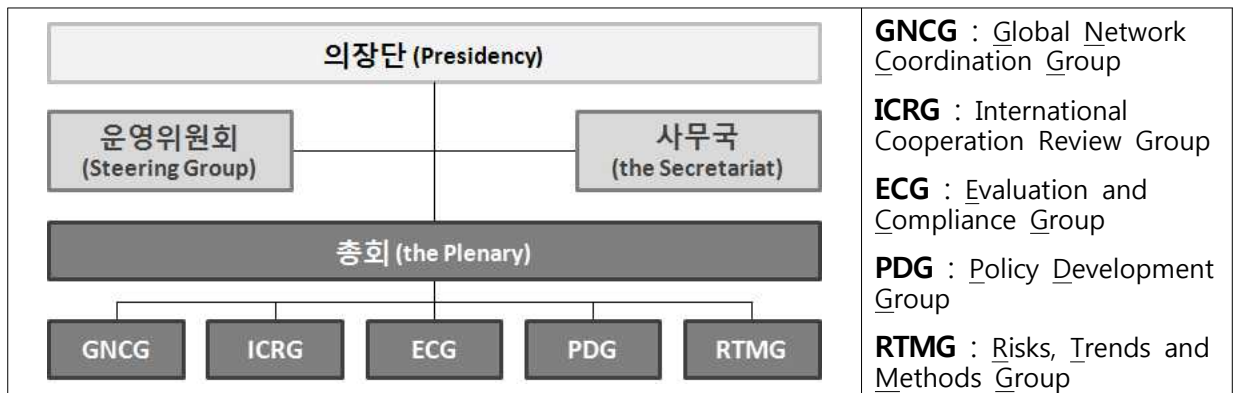
□ 회원 구성

- 정회원(35개국 + EC, GCC), 준회원 (FATF 산하의 9개 지역기구), 옵서버 (IMF, WB, UN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

< FATF 정회원 현황 >

지역	OECD 국가	非OECD국가	국제기구
유럽 (20)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European Commission
미주, 기타 (7)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아태 (10)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중국, 인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계 (37)	26	9	2

□ 조직 구조



□ FATF 의장

- 의장은 FATF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총회 · 운영위 등 주재

* 신제윤 의장은 '14.7~'15.6 부의장직 수임 후, '15.7~'16.6 의장직 수행

□ 총회 : FATF 최고 의사결정기구

- FATF 국제기준 및 정책 방향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비정치적 · 기술적 성격*을 중시함

* 다른 국가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국제기준 이행을 강제

붙임 2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개요

□ **설립목적** (※ 전세계 9개 FATF 스타일 지역기구 중 하나)

- 역내 국가들의 FATF 40개 권고사항의 채택, 이행 촉진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제정, 제도도입, FIU설립 등

□ **회원국**

- 97.2월 APG 설립 합의, 98.3부터 활동개시 (사무국: 호주)
 - 출범시 13개 회원국, '16.6월 현재 41개 정회원국
- 우리나라는 '98.3월 정회원 가입
- 옵서버 회원 : 8개 국가, 28개 국제기구

정회원 (41개국)	옵서버 (8개 국가, 28개 국제기구)
(북아시아 7) <u>한국</u> , 중국, 일본, 대만, <u>홍콩</u> , 마카오, 몽고 (동남아 11) <u>싱가포르</u>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 (남아시아 8) 네팔, <u>인도</u>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부탄, 몰디브 (기 타 4) <u>미국</u> , <u>호주</u> , <u>뉴질랜드</u> , <u>캐나다</u> (태평양섬 11) 피지, 마셜군도, 쿡아일랜드, 사모아, 바누아투, 니우, 팔라우, 통가,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솔로몬군도 ※ 밑줄 국가는 FATF 회원국(10개국)	북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러시아, 키리바시, 투발루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아시아개발은행(ADB), ADB/OECD 부패방지기구,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네트워크(ARIN-AP), 동남아국가연합(ASEAN), 카리브자금세탁방지기구(CFATF), 영연방(Commonwealth), 동남아프리카자금세탁방지그룹(ESAAMLG), 에그몽, 유라시아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방지그룹(EAG), FATF, 국제금융감독그룹(GIFCS), 중앙아프리카자금세탁방지기구(GABAC), 서아프리카자금세탁방지기구(GIABA), 라틴아메리카자금세탁방지기구(GAFILAT), IMF, 인터폴, 중동및북아프리카금융조치전담기구(MENAFATF), 유럽회의자금세탁방지전문가기구(MONEYVAL), 오세아니아관세기구(OCO), 태평양금융기술 지원 센터(PFTAC), 태평양군도경찰(PICP), 태평양군도포럼 사무국(PIFS), 태평양군도법무관(PILON), UN, 유엔 마약 범죄 사무실(UNODC), 세계은행, 국제관세기구(WCO)

□ **주요활동** : 아-태 지역 국가에 대한 FATF의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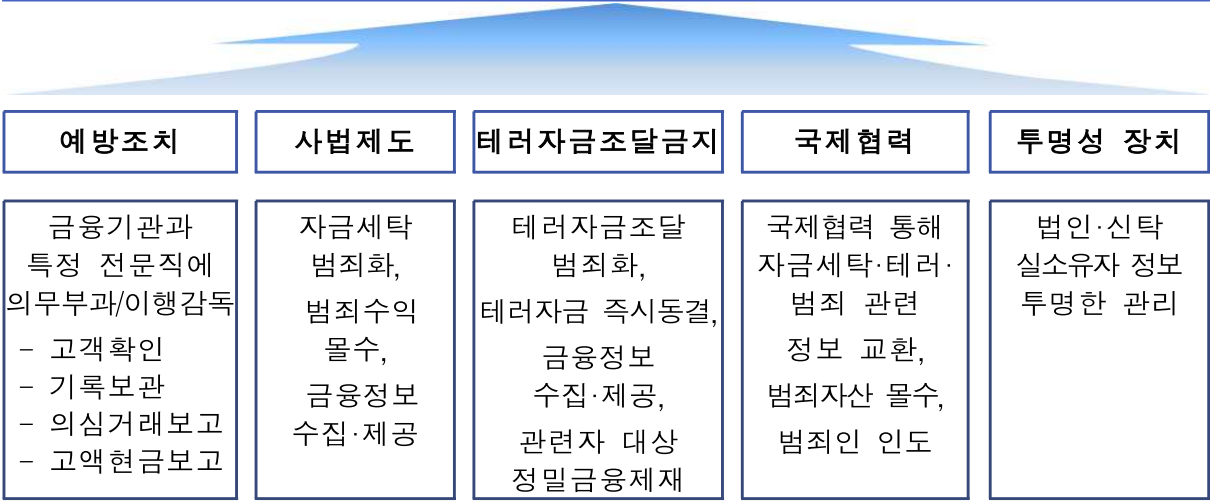
- AML/CFT 국제규범(40개 권고사항) 제정 및 이행에 대한 평가·감독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연구, 대응수단 개발 등

붙임 3

FATF 상호평가 개요

- 상호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AML/CFT 제도를 FATF 평가 방법서(Methodology)에 의거 종합 점검·평가하는 과정

자금세탁·테러자금 차단 통한 금융 투명성과 사회 안전 강화
 * '12년부터는 “대량살상무기(WMD)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기술적 이행(Technical Compliance)’에 ‘효과성(Effectiveness)’ 평가를 추가

- 후속점검 절차와 상호평가 수검 5년 후 현장실사(on site) 점검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상호평가를 상설화

※ 상호평가 후속점검과 FATF 총회 보고주기

[정규 후속점검: 3년 (5년내 1회)]
 [강화된 후속점검: 1~1.5년(5년내 3회)]
 [ICRG 점검대상: FATF 총회(4개월)]

- FATF 상호평가 수검국 84%가 “강화된 후속점검” 이하 평가

< FATF 상호평가 수검국 (19개국) >

구분	국가	후속점검 주기
정규 후속점검 (Regular Follow-up)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3국)	3년 (5년내 1회)
강화된 후속점검 (Enhanced Follow-up)	호주, 미국,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사우디, 바레인 (15국)	1~1.5년(5년내 3회)
ICRG 점검절차 (ICRG Procedures)	아이슬란드 (1국)	4개월(매 FATF 총회시)